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2019 / No.134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송명희 시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십니까?
당신을 때려야 할 채찍을
그 아들에게 내리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찢어야 할 그 가시로
그 아들의 이마를 찢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으나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 | | | |
|----|------------|--|
| 02 | 성시 |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 송명희 시인 |
| 04 | 말씀의 샘물 |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신6장6~7절) • 유상진 담임목사 |
| 06 | 간증문 | 착한 사마리아인 처럼 • 이현철 집사 |
| 08 | 겨울성경학교/수련회 | 처음가는 성경학교 • 이다울 (초등1부)
하나님의 성실한 제자 • 배진송 (초등2부)
Dream & hope 〈나의 꿈, 나의 소망 하나님〉 • 최권영 (중등부)
10대 마지막 수련회 • 김보민 (고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 고은지 (청년부) |
| 14 | QT 지도방법 |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QT교육 |
| 16 | 구역지도자 수련회 |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 손태경 권사
조선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 조은희 집사 |
| 20 | 선교지 기도제목 | 2019 선교지에서 온 기도제목 • 편집부 |
| 22 | 삼일절 100주년 | 소래교회에서 시작된 신앙과
애국의 명문가, 그 흔적을 찾아서 • 편집부 |
| 24 | 새신자 | 귀환의 소망 • 유일균 성도 |
| 26 | 신임교역자 소개 |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 이은서 전도사
신임교역자 소개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기를 • 표경림 전도사 |
| 28 | 독후감상문 |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 강응수 장로 |
| 30 | 영화칼럼 |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강진구 안수집사 |
| 32 | 천송가 해설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김혜림 집사 (소망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 34 | 영암소식 | |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신6장6~7절)



유상진 담임목사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 중심 사회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경제활동과 교육활동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부모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직장으로 출근하고, 자녀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3대가 함께 가족으로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조부모-부모-자녀로 전수되는 가정 중심의 자녀 교육은 약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직장을 찾기 위해 흩어진 가족들은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가정 교육의 연결고리는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의 교육 기능이 학교로 이관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일반교육을 학교가 전담하듯 신앙교육은 교회가 전담하는 식으로 위탁해버린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학교 제도는 1780년 영국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시작된 교회학교는 연령대를 구분하여 신앙교육을 함으로써 신앙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교회학교 제도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어 한국 교회에서도 논의 중입니다. 안식년을 맞아 지난 3월 미국 교회 탐방 기간동안 제가 방문한 곳은 교회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회와 연계한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을 표방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심이 되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감당해야할 역할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신앙교육의 주 무대가 가정에서 교회학교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원을 보내듯,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교회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신명기 6장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신,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현장을 살펴보면,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각자 자기가 속한 부서로 흩어져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각자 따로 예배에 참석하기에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신앙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의

존하는 것만으로는 부모-자녀간 신앙상태를 살피고 나누며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매 주일 온 가족이 통합 예배를 드려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학교의 존재와 교사의 헌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학교의 연령대에 맞는 신앙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교육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에서 시행해야할 부모-자녀간의 신앙 일체감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거나, 부모에게 주어진 신앙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자녀들의 1주일, 168시간 중 겨우 1시간 남짓 신앙교육을 도와줄 뿐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요 삶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머무는 1시간은 1주일 중 불과 0.59%입니다. 교회학교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도움을 주는 곳이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요 부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영암교회는 올 해부터 장년 뿐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도 ‘매일 성경’으로 묵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부모-자녀간 신앙의 공통 화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는 매일의 묵상 외에도 주간마다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지침이 담겨있습니다.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자녀들과 ‘매일 성경’을 펴서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며 기도해보십시오.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고자 씨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렵고 어색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 신앙의 주체로 세우셨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실천하는 신앙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며 부모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중심은 교회학교가 아니라 가정이고, 교사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신6장6~7절). 부모의 가장 우선해야할 사명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Y**

착한 사마리아인 처럼



이현철 집사

고난 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영암지 담당 집사님으로부터 간증문 부탁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은 성격인데 내가 쓴 글을 온교인이나 보는 영암지에 나온다고 생각

하니 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새벽기도회가 모두 끝나고 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부탁이었다. 참 난감하였다. 써야할 거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순간 스쳐갔다.

고민 끝에 승낙을 드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새벽기도회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특별새벽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일 저녁에는 다른 일정을 뒤로하고 일찍이 집으로 들어왔다. 가족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아내와 함께 짧은 대화를 주고 받았다.

아내는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을 함께 돌봐야 하는 일정에 늘 피곤해 하고 다음 일들에 대하여 근심과 걱정이 앞서서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 잠깐 대화중에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 아내의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아내는 잠결에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나는 요즘 매일성경과 2019 사순절 신약성경 일독표 그리고 특별히 뭉쳐진 성경 통독 회원방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다. 최근에 성경을 가까이하다 보니 아내에게 성경 말씀에 의한 답을 주면 아내가 좀 더 평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내 귀에 가까

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근황을 설명해 갔다.

근래에 가장 기억에 남은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4:18) 이었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 부에 대한 관심, 노후에 대한 대책, 교회생활에 대한 문제, 주변 환경들로부터 찾아오는 걱정거리 등이 나와 아내를 늘 힘들게 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나와 아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부분을 해결하는 정답이 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어느덧 밤을 지나 월요일 새벽기도회 첫날을 보내고 점심때쯤 됐을 때 아내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구입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부랴부랴 이리저리 상황 파악 중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최신형 고급 핸드폰을 사주겠다는 나의 마음을 뿌리치고 통화만 잘 되면 된다고 해서 가격이 싼 핸드폰을 샀었다.

그 순간 어이없게도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일 저녁에 중얼대며 나는 아내와의 대화 내용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돈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다. 특히 돈은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나 손실에 의하여 돈이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냐면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기도회를 같이 가보자고 했었다.

비록 가격이 싼 핸드폰이었지만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연도 많아 애착이 있던 터라 최선을 다하여 찾고 있던 중에 시간이 흘러 멀리 양재역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다. 양재역 파출소였다. 어느 여성분께서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주워 파출소에 맡겼다는 것이었다. 조마조마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아내에게 핸드폰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니 모든 것을 얻은 것 처럼 참 기뻐했다.

휴대폰 분실은 해프닝이었지만 나는 다시 한 번 몇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상을 소상히 그리고 섬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기도하며 시간에 쫓겨 촉박한 상황에서도 간증문을 쓸 수 있도록 감당할 만큼의 상황을 전개해 주시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으로 그동안 느슨해진 나와 아내의 심령을 다시 일깨워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기시기 위하여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나는 믿는다.

고난 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더욱더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어부가 되고자 다짐하였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찾아 준 여성분이 분명 성경 말씀 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

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33~34)에 등장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의 마음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비록 순간 짧은 생각이지만 이제껏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성경 말씀을 일 천 번 보아도 믿음과 확신과 행함이 없다면 오히려 어느 순간 착한 사마리아인에 못 미치는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아무쪼록 사순절 고난 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감사합니다. 2019.04.17.수요일 Y



처음가는 성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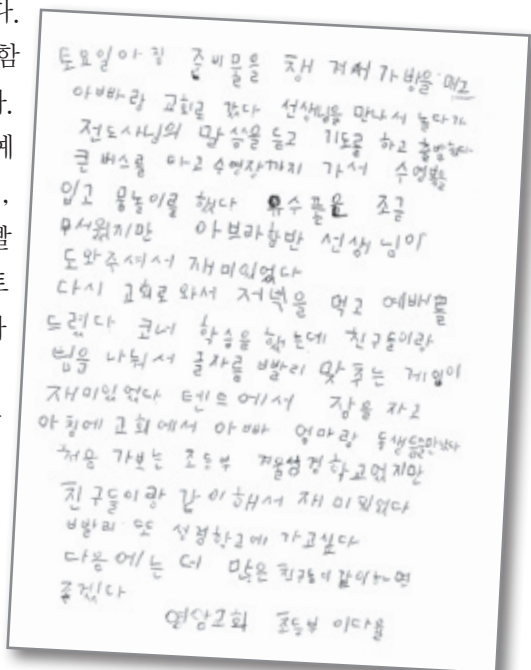


이다울 (초등1부)

토요일 아침 준비물을 챙겨서 가방을 메고, 아빠랑 교회로 갔다. 선생님을 만나서 놀다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출발했다. 큰 버스를 타고 수영장까지 가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했다. 유수풀은 조금 무서웠지만 아브라함 반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재미있었다.

다시 교회로 와서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 코너 학습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팀을 나눠서 글자를 빨리 맞추는 게임이 재미있었다. 텐트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교회에서 아빠 엄마랑 동생들을 만났다.

처음 가보는 초등부 겨울성경학교였지만 친구들이랑 같이해서 재미있었다. 빨리 또 성경학교에 가고 싶다.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하면 좋겠다. Y



하나님의 성실한 제자



배진송 (초등2부)

안녕하세요? 2019년 겨울성경학교를 다녀온 초등학교 5학년 배진송입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주제는 <바른예배생활>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겨울성경학교를 간다고 했을 땐 바른 예배 생활을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기보단, 그냥 친구들과 웅진플레이도시(수영장)를 놀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웅진플레이 도시에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짐이 조금 무겁긴 했지만 친구들과 게임이나 수다를 떨며 기다린 거라 30분이 10분 같이 빨리 시간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식사는 돈

까스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평소보다 빨리 일어나다보니 아침밥 먹을 틈 없이 교회에 가서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심이 엄청 맛있었습니다. 밥 먹고 남은 시간을 야외(노천수영장)에 나가서도 놀고 물에서 술래잡기도 하며 즐겁게 보내고 교회에 와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하느라 허기진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잠깐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은 처음에 말했듯이 “바른예배생활”이었습니다. 설교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바른 예배생활이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꿈이 의사인 사람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라 아픈 사람의 마음까지 사랑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꿈을 가져야하고, 꿈이 작가인 사람도 우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 꿈이 패션디자이너인데 그냥 옷을 디자인만 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랑스럽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도 마치고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했던 게임들은 과일을 잘라서 똑같이 반으로 나누는 게임도 했었고, 플라스틱 관으로 탁구공을 빨리 나르는 게임도 했고, 동전 킬링도 했고, 레몬즙과 고추냉이로 연기하는 게임도 했고, 마지막으로 눈을 가리고 음료를 마셔보고 맞추는 게임도 했습니다. 이긴팀에게는 선물을 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게임에 참여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레크레이션 후에 야식으로 라면과 굴을 먹었고 잠 자기 전에 친구들과 마피아 놀이를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갔다 오기 전과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놀러 왔지만 설교를 듣고 레크레이션을 하다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난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진정한 성공을 안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성공해도 동료들 덕분에 성공을 했을 것이고, 부모님 덕분에 성공을 했을 것이고, 주변의 지인 덕에 성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저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이 협동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누려고 하고, 용서하고, 협동하려 하는 삶을 살면 남들은 이해가 안 가 비난할 지도 모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다녀온 후인 지금은 성경학교를 가는 이유가 놀러,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나요? 전 하나님의 성실한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지내준 초등2부 친구들, 선생님께 감사하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초등2부 전도사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Y

Dream & hope <나의 꿈, 나의 소망 하나님>



최권영 (중등부)

저는 이번 겨울에 영암교회 중등부에서 Dream & hope <나의 꿈, 나의 소망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겨울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막 초등부에서 올라온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나의 꿈,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은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기도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좋았던 수련회였습니다.

즐거운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나의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는 검사의 시간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야외에서 조 학생들과 미션을 수행했던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습니다. 밤에는 학생들과 둥글게 앉아서 함께 즐겁게 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겨울수련회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좋은 기억들로 인해 내년 겨울 수련회도 꼭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Y

10대 마지막 수련회



김보민 (고등부)

교회에서 겨울수련회를 간다고 연락이 왔다.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엔 수련회를 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마지막이기도 하고 10대 마지막 겨울수련회이기 때문이다. 수련회 당일 금요일 저녁에 알바가 끝나고 선생님이 데리러 오셨다. 차를 타고 야경을 보며 가다보니 숙소가 보였다. 숙소에는 노래방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도착해보니 지금까지 갔던 수련회 장소 중에 가장 설 수 있는 장소가 많은 장소여서 좋았다.

수련회주제는 “Love is here”, 사랑이었다. 전도사님께서 사랑이 뭐냐고 묻자 몇몇 애들이 이해하는 것,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들어

가 봤더니 최신곡도 많아서 동생들과 재밌게 놀 수 있었다. 한참을 놀고 보니, 잘 시간이 되어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방학에 매일 늦게 자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한 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에 계획표를 보니 아침산책이 있었다. '아침부터 산책이라니.. 게다가 바닷가 근처라서 더 추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옷을 주섬주섬 꺼입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먹은 건진 모르겠다...) 조친구들과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산책을 하다가 바닷가를 보러갔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췄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바닷물은 다 빠지고 없었다. 하지만 새벽에 눈이 와서 다니는 길마다 새하얀 세상이라서 좋았다. 산책을 다 하고서 숙소에 들어와서, 잠깐의 자유 시간을 갖고 조별로 점심에 먹는 떡볶이 재료를 살 수 있게 포인트를 걸고 게임을 시작하였다. 게임을 하고나서 생각을 해보니 머리를 쓰는 게임을 많이 한 것 같다. 게임을 모두 다 하고 등수를 보니 우리 조는 2등이었고 매우 만족스럽게 재료를 사서 떡볶이를 해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자유시간이 생겨서 친구들과 쌤들이랑 주변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다. 주변은 펜션 촌이라 그런지 펜션이 매우 많았고 조그마한 슈퍼도 있었고 우리 교회 남자애들이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찌다보니 나도 축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축구를 했다. 이게 아닌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아니면 내가 축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나도 같이 놀 수 있게 애들이 많이 봐줬다. 이 지면을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살짝 전한다.

그리고서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집회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찬양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설교시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전날에 잠을 설치서 그런지 설교가 시작된 지 10분 정도가 되니 졸음이 밀려왔고 결국 이기지 못하고 조금 잔 것 같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 고등학교 1, 2, 3학년 순서대로 축복을 해주고 선생님들까지 축복을 해주어서 집회가 끝났다. 매년 하는 축복이지만 할 때마다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느낌은 나 혼자서만 느끼는 감정인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하고 싶게 되는 느낌이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서 역시나 그렇듯 신나게 놀기 시작했는데, 놀다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걸 보고서 슬쩍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들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늦은 시간에 숙소로 갔는데, 아직도 애들이 안자고 있어서 같이 놀았다. 그리고서 밤을 새고 교회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왔다. 쉬는 시간도 많았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서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항상 집회시간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지 못하는 느낌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수련회에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Y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고은지 (청년부)

청년공동체 겨울수련회 주강사 양진일 목사님(가향공동체, 하나님나라 신학연구소 부소장)은 왜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인지 역사와 문화로 설명해주셨다. 지적인 설명을 통해 기독교인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정의가 없고 진실이 없는 이 땅에 인간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이것이 살림의 상태이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곳, 하나님 나라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동등하지 않았다. 유학의 가치관에 의해 신분제로 사람을 하등 취급하고, 가부장제로 인해 여자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소중하다는 사고를 만들어 내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가치를 믿으며 산다. 능력 없고 약한 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며 이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너무 잘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르다면서 세상을 살 때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의 죄를 조심해야한다. 10명중 1~2명이 하면 죄라고 인식하지만 7~8명이 하면 문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팡투기가 문화이고, ‘세상의 복음’인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기독교인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성경의 복음은 시편 1편1절처럼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겹하여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깨어 있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꾀꾀 씀씀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도우신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자아를 내려두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 기도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의 단계에 해당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주세요”이다. 어른의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

소서”라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 단계라 해도, 개인의 발이 가시밭, 자갈밭이라 해도, 공동체가 좋은 땅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다. 청년부의 수련회 나눔중에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후기들이 많았다.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많아서 기뻐다. 동지가 된 기분이 들었다.

수련회 전체 참석이 힘들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 수련회 준비 위원회를 하겠다고 모여 고군분투를 하는 것을 보며 영암 청년부의 열정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해야할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각자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키우시며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셨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을 배웠고, 영암 청년 공동체의 주인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감사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다. **Y**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QT교육

-2019 봄학기 교사 Q.T. 세미나 강의를 듣고 나서-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교육부서의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영암교회 교육부 DREAM입니다. 교회와 협력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교육부서가 다함께 매일성경으로 Q.T. 교육을 하게 되면서, 지난 3월 9일 상반기 교사세미나를 <Q.T. 세미나>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유익했던지라, 함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각 부서별로 강의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영유아유치부 부모님께

신앙교육은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교회? 가정? 둘 다 정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제1의 교사이고, 교회에서 교사는 제2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읽게 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최초의 성경 해석자가 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은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 내 꿈을 이뤄 줄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암교육부의 미취학 자녀들은 「큐티아이」라는 교재로 매일 말씀묵상을 합니다. 「큐티아이」는 아이들이 말씀을 다채롭게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유치부의 아이들은 아직 자발적으로 큐티를 할 수 없기에 부모님들께서 함께 큐티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큐티에 앞서 네 단계를 점검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큐티하는 시간은 “함께

하고(영적인 소통), 정해진 시간에 (영적인 리듬), 눈높이를 맞춰서(영적인 필요), 회복의 기회로 삼는(영적인 충전)”시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아이들과 함께하며 영적인 소통을 하고, 큐티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리듬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한, 하늘의 양식인 성경을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관계와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영적인 충전에 힘써야 합니다.

큐티 진행순서는 “찬양하기 → 기도하기(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 성경읽기(소리내어 읽어 주세요) →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아하-다양한 활동)”입니다. 「큐티아이」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와의 묵상, 가족 간의 나눔이 더욱 재밌어질 것입니다. 큐티를 통하여 매일 말씀과 벗하는 행복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초등1·2부 부모님께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훨씬 좋겠지만, 초등학교 시기에는 성경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신앙형성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큐티 기준은 “아이들이 성경 본문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에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유니온(매일성경의 출판사이자 집필진) 강사가 추천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5단계 큐티 방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도로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기도로 시작한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시작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한 줄짜리 짧은 기도문을 작성하여 매일 반복하여 읽어도 좋습니다.

(2) 내용을 살펴요: ‘오늘의 큐티 제목’, ‘큐티 구절’, ‘본문의 핵심을 나타낸 그림’을 보면서 묵상할 내용들을 간단히 상상해 봅니다.

(3) 말씀을 세 번 읽고 발견해요: 본문 말씀은 총 세 번 읽습니다. 초등학교생은 이렇게 세 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세 번은 다음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훑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읽을 때: 4색볼펜으로 구분하여 밑줄을 칩니다. ‘인물’이 나올 때는 그 이름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ex) 베드로, 갈렙, 무리들..... 그리고 ‘장소’가 나올 때는 그 이름에 파란색으로 네모 표시를 합니다. ex) 갈릴리, 요단 강, 사마리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곳에 빨간 색으로 세모 표시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빨간 밑줄을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 장소,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분해서 읽으면 스토리와 중심내용이 더 자세히 들어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매일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읽습니다.

(4) 말씀을 이해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라는 매일성경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도하고 실천해요: 오늘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가정에서 Q.T. 교육을 하실 때 위 내용을 토대 삼아 지도를 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신앙교육의 시간이 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부모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부모님께

중·고등부 QT세미나는 성서유니온 북서울지부에서 총무로 사역 중이신 민만식 목사님께서 90분 남짓한 시간동안, 학생들과 맞이하게 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열강해주셨습니다.

강의는 유인물을 바탕으로, QT와 관상, 명상이 어떻게 다른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상과 명상은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QT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사님께서 QT를 진행하며 경험했던 어려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사의 마음가짐을 강의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해보는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과 아이들에게 QT를 권장하려면, 권장하는 사람이 먼저 해보는 모범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교회 표어인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멀고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세미나를 통해 들은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말씀 앞으로 한 걸음만 가까이 가보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리고 권장하던 시편34편의 화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며 말씀이 세워가는 교회를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Y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손태경 권사

수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한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구역지도자 수련회를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부산 순례지의 첫 장소인 고신대학교를 향해 버스가 언덕길에 오르자 양쪽 길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반갑게 우리를 환대해 주는 듯했습니다.

그 곳에 도착하여 경건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요일4:12) 라는 제목으로 유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관계 안에는 사랑을 갈망하나 오해와 다툼,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깨어짐의 은총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구역을 섬기는 구역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신대 안민 총장님께서 고신대는 선교중심 대학으로서 복음의 빛을 갠 분명한 소명을 갖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독인재를 양성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가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성경을 기초로 한 바른 교육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는 학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영암교회 강진구 집사님이셨습니다. 강진구 집사님께서서는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집사님께서 학교를 소개해 주시니까 고신대학교가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었습니다. 복음병원은 호주에서 오신 맥켄지 선교사님의 두 딸님이 한국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인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하셨는데 고신대가 자랑하고 존경하는 장기려 박사님과 만나면서 확장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며 그 곳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자랑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고신대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니 푸른 바다 위에 오륙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오륙도는 썰물때는 섬이 다섯 개인데 밀물이 되어 바닷물이 들어오면 하나의 섬이 두 개로 보여 여섯 개의 섬이 된다하여 오륙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유상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개한 벚꽃을 뒤로 한 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의 참상을 국민에게 알려 올바른 역사를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동원 출발지였고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조선인을 거짓말로 속여 산업현장 노무자로 군무원, 군인으로 그 때 당시 700만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였으며 여성위안부로도 40만명 이상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고통을 역사로 보는 것조차도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그 분들이 당한 고통과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 비참함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라 잃은 아픔은 고스란히 약한 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었던 그 날의 슬픔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분들은 일본, 중국, 사할린, 대만, 동남아시아, 태평양 일대까지 강제 동원되었으나 일본이 패망한 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국의 가족의 품에도

돌아오지 못하였고 또 배는 겨우 뒀으나 배가 파선되어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 설명에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동백공원 해안 산책로를 거닐며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수련회 첫 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도착하였습니다. 멋진 부산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사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벗들과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날 1891년 호주에서 오신 멘지스 여선교사님이 세우신 부산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요10:2~5)의 제목으로 유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은 어리석고 미련한데 고집도 썩어서 제 길로 가는 특징이 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말을 알고 듣고 따를 때이다.

구역지도자로서 두 가지 살펴야 할 것은

1.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양인가?
2. 구역식구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디딤돌이 되어주고, 밝혀주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돕는 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렇게 구역식구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원로장로님께서 부산진교회와 일신여학교에 대하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교회 옆에 일신여학교를 세워 여성교육에 앞장섰으며 1919년 3.1운동 때 선생님들과 여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부산지역의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부산진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과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믿음으로 나라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셨던 그 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까지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같이 여기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의 빛진 자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1885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5:16)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낙동강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박2일의 구역지도자수련회를 준비하신 목사님들과 수련회 일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신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Y

조선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조은희 집사

이전에는 삶이 바빠서 상계 구역 권찰이면서도 관심을 두지 못했던 구역 지도자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강권하심과 구역장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4월 4일 아침 일찍 교회에서 모여 버스를 타고 준비위원들

이 준비한 푸짐한 간식도 한 봉지씩 받고 설레는 마음을 싣고 부산으로 출발하였다.

높은 산등성이를 올라가서 첫 번째 다다른 장소는 고신대학교였다. 도착해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요한일서 4:12) 라는 말씀 속에서 유상진 담임 목사님은 구역 지도자들에게 디트리히 본 회퍼의 “깨어짐이 은총이다.”라는 비유를 하시며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속에 실망과 갈등도 있지만, 그 상처 속에서 딛고 일어서면 구역이 살아나고 생명의 꽃을 피운다고 하셨다.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고신대학교는 일제 해방 후 주남선, 한상동 두 목사에 의해 세워진 해방의 값진 선물로 1946년에 설립되었다. 안민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 고신대학교 비전 곧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 살자는 뜻을 내걸고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에게 받은 복음의 빛을 세계에 되돌려주려 선교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모습에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건물 바깥으로 나와 높은 언덕을 올라가니 전망대 쪽에서 탁 트인 부산 앞바다가 보였다. 날씨가 좋아서 오륙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늘 들어만 봤던 오륙도를 정면으로 또렷이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

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다다른 곳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 동원 출발지였고 강제 동원지의 약 22%가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2008년 부산에 건립 방침을 확정하고 2014년에 건립되었다. 강제 동원된 사람들을 태워가던 배 모양의 형상을 하였다고 한다.

4층 전시실에 가족사진을 보면 한참 학업할 나이인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소년병들이 보인다. 소녀들도 정신대나 위안소에 가지 않으려고 조혼을 한 가족사진이 있다. 조선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고통과 죽음의 길을 공포를 누르며 끌려간 것이다. 수탈과 침략의 일제 치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되새겼다. 지금의 우리는 ‘육망의 섬’에 스스로 포로가 되어 이끌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4월 5일 역시 날씨가 화창했다. 숙소에서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조식을 먹고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곧 부산진 교회에 도착했다.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쪽 서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나와 같은 고향이신 문장로님이 부산진 교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후세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해 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부산진 교회는 1891년 내한한 호주 여선교사 멘지스(Belle Manziess)에 의해 세워졌다. 호주 장로교 선교부가 개척한 가장 오래된 교회이다. 1890년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 후 1891년 맥카이 목사 부부와 호주 장로교 여선교사 멘지스, 페리, 퍼셋 세분이 한국에 오셨다. 왕길지 목사가 1900년 호주에서 부산으로 부

임해오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갖추었다. 그는 1904년 심취명을 장로로 세우고 부산진교회 당회를 조직했다. 부산진 교회는 서울을 제외한 최초의 당회를 조직한 것이다.

교회 입구에는 멘지스 양과 무어 양의 기념비가 있고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 선교사를 기념하는 비석이 북병산에 세워졌던 옛 비석 모양을 본 떠 세워놓았다.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 선교사

1893년 멘지스는 고아들을 모아 ‘미오라 고아원’을 열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여아들의 교육이 1895년 부산진일신여학교로 이어진다. 초대 교장으로 멘지스가 취임하였다. 바로 한강 이남 최초 여성학교의 시작이었다. 1905년 좌천동으로 옮겨 현재의 건물인 1층을 지었다. 그후 고등과를 만들고 1913년 첫 졸업

생을 배출하였다. 부산 선교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부산진일신여학교는 독립지사와 박차정 의사, 양한나와 같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지역 여성 인재의 산실이다.

일신 여학교 학생들은 부산 3.1 운동을 이끌었으며 부산진 교회 출신교인 박신영과 주경애 선생 등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다 부산 감옥에 복역하기도 했다.

나에게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온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은 비록 35세의 짧은 생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바울

과 같이 도보로 선교하며 오는 동안 풍토병이 걸려 부산에 20여일 만에 도착해서 쓰러져 죽지만, 그가 흘린 순교의 피가 부산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죽음 이 계기가 되어 호주 선교부에서 많은 여성 선교사와 목사들이 계속 오게 되었다. 그리고 멘지스 여사의 비석은 그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한 부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하였다.

한국 땅에 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신 두 분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들의 섬김과 헌신, 순종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재조명하며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1919년에 시작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해이다. 부산의 선교 발자취를 돌아보며 기독교가 앞장서 시대의 아픔을 안고 모범을 보이며 지역사회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끈 삶의 현장과 역사를 알게 되었고, 일제 치하에서 곳곳이 버텨준 조상들 덕분에 이 땅의 봄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하셔서 이끄신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와 사랑의 열매들을 기억하게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한다.

일제강점기 때 고단한 삶을 산 신앙의 선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쳤는데 지금의 우리는 그 외부의 적이 아닌 ‘탐욕’이라는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내면의 정결’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 교회 탐방을 다녀오시고 바로 합류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수련회를 기획하시고 이끄신 부목사님들 그리고 귀한 섬김으로 수고한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Y**

2019 선교지에서 온 기도제목

서울여자대학교 기도제목

1. 서울여자대학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품격과 인품을 갖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스마트 도서관 기초공사가 진행될 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각 부분이 성실하고 일관된 손길에 의해 개보수가 되도록 하옵소서
3. 스마트 도서관 리모델링에 선한 손길과 부족한 재정을 허락하시어 2019년 2학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에티오피아 이미경 선교사

1. 구라게 지역의 워타레 교회와 예카티트 교회와 사역자 워인쉴트, 으게제 교회건축을 위해
2. 미전도 종족인 아파르 종족과 예레르 지역, 웨이 이드메 지역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북쪽의 장로교회와 사역자들, 특히 하이끄 지역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지도록
4. 윌리소 장로교회의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5. 은까레 마을의 세 가정과 두파 장로교회의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도록
6.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넥타선교회

1. 링크된 학교와 교회가 청소년을 자라 품고 사역하게 하소서
2. 지역탐색을 통해 만나게 될 교회와 사역자가 반응

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하소서

3. 기독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며 행복하게 하소서
4. 넥타 사역 20주년을 감사와 기쁨의 동역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철원주시사랑교회

1. 교회가 위치한 지역주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2. 교우들이 말씀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소서
3. 자립과 부흥을 위해

송실대학교

1. 소망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송실이 되게 하소서
2. 2019학년도 1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소서
3. 송실대학교가 더욱 기독교 정체성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4. 이단 사이버 단체의 거센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주소서

산천교회

1.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2.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3. 모든 성도들의 가정 구원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승리자 되도록
4. 산천 마을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

복된교회

1. 성전건축의 마무리가 잘 되게 하소서
2.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되게 하소서
3.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되게 하소서

실만한 교회

1.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조국의 평화 통일과 안정과 발전을 주옵소서
3. 이 민족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4. 이 민족이 세계의 복음화와 평화를 주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5.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 위해 간혀 있는 목사님들을 자유케 하소서

신천교회

1. 마을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2. 마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3. 농번기 중에도 지치지 않고,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도록
4. 여름에 추수할 일꾼(농활)들을 보내주시도록
5. 사역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도록

뉴질랜드 김형균 최송이 선교사

1. 현지인들에게 영어설교를 시작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2. 뉴질랜드 장로교단 사역지와 학원선교를 위한 교목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 비자 갱신이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함께 하는 10후원교회와 100명의 재정과 기도의 후원자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말국

1. AYU(아이유) 전도팀이 더욱 활성화되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2. ARROW 정기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2019년 이곳에서 다시 열리게 될 ARROW 집회를 위하여
3. 새롭게 말국에 헌신한 단기 사역자와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4. 내년 4월에 예정된 아들 선호의 결혼식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5. 5B 지역에 잇 분이 예비하시고 사역 목적에 꼭 맞는 센터를 얻을 수 있도록 **Y**



소래교회에서 시작된 신앙과 애국의 명문가, 그 흔적을 찾아서

2019년 올해는 특히 삼일절 백주년, 임시정부수립 백주년을 기리는 해입니다. 영암교회 편집부에서는 이 역사적인 해를 맞아, 또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올해 총회 표어를 생각하며 한국 교회사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가계를 찾아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 역사는 사실 대단히 짧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크나큰 급성장을 경험하였다. 길지 않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찍이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민족적으로도 큰 공헌을 한 가계들이 더러 등장했는데, 특히 소래교회 초창기부터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여 많은 민족지도자들을 배출한 소래의 광산 김씨 일가가 그러하다.

소래교회는 1884년 서상륜·서경조 형제가 전도하여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이다. 초기 성도들 중 광산 김씨 일가의 김성섬(金聖瞻)은 소래마을의 유지였으며, 이 일가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성경적이고 근대적인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

김성섬의 차남 김윤오는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친분을 맺었으며, 특히 백범 김구와 막역하였다. 김구는 ‘여옥’이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으나 그만 결혼 전 병으로 죽게 된다. 이에 김구는 애통해하며 장모를 위로하고자 김윤오에게 맡겨 예수를 믿게 할 정도로 신뢰가 깊었다. 또 도산 안창호와도 교분이 있어 그의 결혼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한편 김성섬의 4남 김필순은 어린시절부터 개신교

를 받아들여 새어머니를 전도하기도 했다. 김필순은 이후 언더우드 선교사를 따라 서울에서 신식 교육을 받아,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의 통역을 하며 「해부학 교과서」, 「외과총론」, 「해부생리학」 등 의학 서적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에비슨은 김필순의 능력을 높이 사 계속 교육을 시켜,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 중 한 명이 되게 하였다. 당시 대한제국 국군 해산 당시 일본군과 구한국군의 시가전이 한창일 때, 직접 부상병들을 싣고 집으로 데려와 밤낮없이 치료하기도 하였다.

김필순은 또한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고, 신민회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와해되면서, 김필순은 조국을 떠나 중국 만주 통화현으로 이주하여 이상춘을 건설했다. 해외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으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 여겨 본 일본 의사에 의해 1919년 독살 당하고 말았다.

김성섬의 차녀 김순애는 신학문을 배워 소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오빠 김필순의 친우인 김규식과 혼례를 치렀다. 결혼 후 김순애 부부는 상해로 이주하여 여운형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에 가입했고, 국내로 파견되어 국내의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였다. 다시 상해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며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을 뒷바라지 했다.

삼녀 김필례 역시 어린 나이 때에 신학문을 접했으며, 서울연동여학교(현 정신여중고)를 1회로 졸업하였고,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여자학원을 졸업하였다. 의사인 최영욱과 결혼 후, 조카 김마리아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20년부터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김활란 등과 함께 YWCA를 설립하였다. 이후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며 계속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다.

김성섬의 장남 김윤방의 딸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 졸업 후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교에서 교사를 역임하였다. 1915년 동경여자학원에 입학하여 동경유학생 독립단에 참여, 2.8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2.8 독립운동 선언문을 휴대하고 귀국하여 3.1운동 준비에 참여하였으며, 3.1 운동이 벌어지자 일경에 체포, 구금되었다. 출옥 후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 독립선언문 배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모친 고문을 받고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해변에서 휴양 중 중국 상해로 탈출, 고모부인 서병호, 김규식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국민대표회의에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가하여 활동였다. 미국에서 문학, 사회학,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원산 미르타 윌슨 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 고문의 여독으로 1944년 별세하였다.

김필순의 삼남 김덕린은 ‘김염’이라는 예명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105인 사건으로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아버지가 독살 당하자 상해로 이주

하여 고학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다가 영화감독의 발탁으로 <도화읍혈기>, <야초한화> 등 40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유명배우가 되었다. 1932년 당시 상하이의 영화신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김염은 3개 부문에서 1위로 뽑혀 ‘영화황제’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중국영화 100년 역사에서 오직 김염만이 ‘영화황제’로 소개된다. 모택동으로부터 ‘국가 일급배우’의 칭호를 받았으나 끝내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아 문화혁명시 수용소에서 중노동으로 고생하다가 1983년 상해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대로>, <장지 룡운>, <장공만리>등 대부분이 반일영화였다.

이와 같이 소래교회 출신의 김성섬 일가는 많은 개신교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들이 이 가계에서 나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영달과 안위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래에서 출발한 믿음의 가계, 광산 김씨 일가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다. 삼일절과 임시정부수립 백주년을 맞아,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계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Y**

귀환의 소망



유일균 성도

1974년 3월 초 대광 중학교에 입학한 나는 당시 담임 선생님이시던 박정수 장로님께 인도되어 처음으로 영암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중고시절과 졸업 후에도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펀지처럼 무엇이든 한없이 빨아들이던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키워 갔고,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와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즐겨 부르며,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회 활동도 하였습니다. 방학 때 수련회를 함께 했던 그리운 친구들, 샤이보이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좋아했던 첫사랑 여학생 등… 지금은 모두 아련한 옛 추억으로 남아 버렸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 영암교회는 나에게 크고 많은 감명과 추억을 남겨 주었습니다.

대학 2년 초에 이사를 가면서 영암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후로 교회를 점점 더 멀리 하고, 충실히 세상 원리를 좇아 인간 관계와 현실 생활을 꾸리며 살아갔습니다. 남아수독오거서를 얘기하며 사회과학, 인문학, 사상서, 철학서적 등 책 줄 깨나 읽었다고 자부한 나였지만, 청마의 싯구처럼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딪히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들 - 인생의 궁극적 목적, 삶의 공허함, 세상사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항상 중요한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잊고 사는 느낌, 그런 삶을 보낸 것입니다.

어느덧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퇴직하고 나의 영혼은 방황의 시기를 맞았고 고민 끝에 새로이 사업을 정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즈음에 부친의 암, 모친의 치매 끝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삶과 죽음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우연히 새벽에 듣게 된 CBS방송의 선교 프로그램에서의 찬송과 묵상의 말씀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 이 내 가슴에 시리도록 와 닿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형 내외의 수 년간 매일 나를 위한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일까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40여 년 만에 다시 영암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에 알던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잊을 수 없는 박정수 장로님, 장지우 장로님, 윤석봉 장로님과 가족들, 길학철 장로님,

그분들의 뜨거운 환영과 반가움, 재회의 기쁨, 그리고 김웅태 장로님의 애정 어린 멘토링,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영암으로 귀환하여, 내 영혼의 갈급함이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동안 쌓은 나의 죄악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내 영혼의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내리신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을 살피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신앙 생활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탄하던 신자들처럼 행함 없이 말로만 살아가지 않기 위해 나를 질책하여 주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을 비탄한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행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혜와 용기를 갖고 관용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에 거하며 진리를 알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편 39:7)

아멘 Y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이은서 전도사
(유아부)

안녕하세요. 1월에 부임한 이은서 전도사입니다. 제 이름은 은혜 은(恩), 베풀 서(叙)로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영암교회에 발걸음한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저는 매주 주일 유아부 친구들과 고

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요일에는 야기학교를 은혜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있을 부모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좋은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를 20살 때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때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기에는 많이 어리고, 사역의 기초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에 목회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나 제가 직접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부서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로 부르셨을 때, 조금 더 나이가 든 후에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주일의 시간동안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이 바뀌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린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 4:12)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며,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열심히 13년을 달려왔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섬겼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정이 가득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힘을 얻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역의 기초를 단단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함, 파스함,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암교회에서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보석 같은 아이들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의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생님들과 호호해 가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린 영혼들과 그들의 양육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의 교육보다는 기독교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영암교회 교육부 DREAM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Y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기를



표경림 전도사
(유치부)

안녕하세요?

영암지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
는 유치부전도사 표경림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향긋한 바람이
반가운 5월, 사랑과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7년 전 겨울,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영암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성북천을 지나 주택가에 자리한 영암교회
는 훈훈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한해 한해 더해가면서 둘이었던 가족이 셋이 되고, 넷
이 되면서 안암동에서의 추억도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새롭기만 했던 거리들이 익숙한 길이 되었습
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눈물로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걸음
을 걷던 중, 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
다.

그렇게 영암교회와도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 자연스
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영암교회
에서 또 다른 여름과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맞이했습
니다.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께서 함
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선물해주심
에 감사하며,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어찌할 수 없는 물음 앞에 섭
니다.

생명을 잃은 아픔, 일터를 잃은 슬픔, 건강을 잃은 고
통,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물질로 인한 괴로움 앞
에서 영암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께 귀기울이며 우리의 배움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배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
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하나. 영암공동체 안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의 마
음과 영혼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가슴에 하나님
의 온기를 불어넣는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둘. 영암의 추억이 더해져갈 교육공간인 드림센터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까지 새롭게 입
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Y**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강승수 장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게 두지 말라

우상-아이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 로맨틱한 이성 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 삶을 지배한다.

• 평생 소원 -아브라함과 이삭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 그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무게 중심이 이삭에게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절해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승진에 치명타를 입을 상황에 부딪치지 않는 한 직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직장이 우리의 가짜 신이 될 것이다.

• 내가 만든 신, 사랑-야곱과 라헬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을 가짜 신으로 삼는 일이야 늘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기가 더 쉬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휩쓸려 희망을 몽땅 거기에 건다.

사랑을 쫓아다니다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온다.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우리에게도 딱 들어 맞는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간 일했으나 외삼촌은 그녀의 언니 레아와 결혼시켰다. 야곱은 다시 7년을 일하여 결국 라헬을 얻었다. 로맨틱한 사랑은 마약처럼 작용하여 삶의 힘든 현실을 도피하게 해 준다.

레아는 이 슬픈 이야기에서 영적 성장을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다. 출산의 세월이 모두 흐른 후, 넷째 아들을 낳고서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이 아이는 유다였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

여기에 우상숭배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다.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참 신량이다. 네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 줄 품은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

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나아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결혼생활이 자신의 신적인 기대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는다. 신 같은 배우자를 기대하고 결혼한다면 상대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은 뻔하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해야 한다.

• 내가 만든 신, 돈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착취 금액의 네 갑절이나(눅19:8) 갚고자 했다. 이런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답하셨다. 그분은 내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니라고 하지 않으셨다. 구원은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다.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삭개오는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였지만 이제 자기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돈은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다.

• 내가 만든 신, 성취 -나아만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으나 나병환자였다. 그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 나음을 얻었다.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은 이 이야기의 숨은 영웅이다. 그녀는 아람의 습격대에 잡혀 왔다. 그녀는 종이고 여자인데다 아직 어렸다. 한마디로 완전히 결단난 인생이었다. 그게 누구 때문이던가? 군 최고사령관이자 육군 수장인 나아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원수가 나병에 걸렸음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던가? 그녀가 한 말을 보라.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왕하 5:3), 말 속에 연민과 관

심이 묻어 난다. 정말 아픔을 덜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싶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는 그에게 선지자를 소개할 이유가 없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바로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명해진 일이다.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 가면을 쓴 숨은 신들, 문화 종교 -요나

특정한 우상에 대한 집착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에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 그 우상의 실체를 분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유명한 요나의 이야기일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경고하라고 명령하셨다. 니느웨는 앗수르 제국의 본산이었다. 이 제국이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쳐부수려 위협했으므로 앗수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자해 행위로 보였을 것이다. 요나에게 궁극적인 선은 바로 조국의 자유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을 멸하지 않으신 것은 사랑이 많으셔서인데, 우상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 사랑까지도 악한 것으로 보였다. 하나님이 물으신다. 네 사랑도 내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 밖에 모르는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느냐?

• 결어

우상 자체는 거의 언제나 선하다.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이제부터 직장과 가정을 그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훨씬 더 사랑하면 그런 것에 집착해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더없이 기뻐하며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Y**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이보람 감독의 '콜링' -



강진구 안수집사
(영화평론가)

유튜브에서 만나는 기독교영화

이보람 감독의 영화 <콜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영화다. 극장이나 VOD(원하는 영화를 돈을 주고 전송받아 보는 시스템)를 볼 때처럼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

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화된 영화관 점에서 새롭다.

유튜브나 인터넷 VOD는 가장 성장세가 빠른 영화의 플랫폼(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들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밝힌 지난 해 한국인들의 영화관람 태도가 이를 증명한다. 2018년 극장을 찾은 관객의 수는 총 2억1,649만 명으로 1인당 영화관람 편수는 4.18회에 해당한다. 이것은 세계최고 수준의 영화관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한국이 영화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7의 2억 1,987만 명 보다 약 3백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이기도 하다.

관람료에 부담을 느낀 한국의 젊은층들이 영화관 대신 찾아가는 곳은 미국의 대형업체가 한국에 개설한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인터넷 VOD시장이었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 온라인시장의 규모는 극장관람료 수입이 감소한 것과는 다르게 상승세에 있다. 2017년 4,362억 원이었던 온라인 영화시장은 2018년 4,739억 원으로 8.6% 증가했다.

이것은 영화관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극장만이 아니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기독교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세계와 유튜브 세상에 발을 옮겨놓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일이다. 그런 의

미에서 이보람 감독의 영화 <콜링>이 유튜브를 놀이공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매우 적절한 문화선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좋은 기독교영화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마5:15)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출수 있는 기독교문화는 유튜브를 통해 널리 퍼져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 신앙의 문제와 직면하는 영화

<콜링>이 이전의 기독교영화들과 다른 면모는 작품의 내적인 표현방식에서 나타난다. 주제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을 다루고 있지만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현대적이며 새롭다.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재민(임재민)은 어느 날 자동차를 보러 온 시연(김시연)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 예전에 좋아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동안 시연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재민은 정직한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 영화가 보여주는 재미는 선교사로의 부르심과 옛 사랑에 대한 성취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전개된다. 재민은 시연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시연을 따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일 시연과 다른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매우 감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영화는 보여준다.

교회에서 나를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울러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를 영화는 갈등의 소재로 삼고

있다. 물론 영화는 정답도 제시한다. 선교는 선교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선교를 사랑과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혼합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영화는 관객에게 제시한다.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청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인 부르심 혹은 소명, 아니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철저히 현실적인 언어로 영화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독의 영화관이라 볼 수 있는 재미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은 기독교영화도 디지털 세대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연은 묵직하고 진지하지만 주변 상황을 만들어가는 조연은 매우 코믹하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세대가 좋아하는 쿨한 방식인 셈이다. 슬프다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잘됐다고 해서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은 너무 고전적이다. 인터넷 세대에게 진짜 멋진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대응하는 사람이다.

형식은 가볍게 내용은 거룩하게

세상에서 한창 잘나가고 있을 때 사표를 쓰고 하나님의 소명임을 언급하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일은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그러나 이를 진지하게 묘사했다면 현대의 젊은이들은 곧 부담을 느끼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생각해야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했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까닭이



다. 이 때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을 통한 코믹한 연출은 선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볍게 선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시킨다. 유머는 두려움의 해독제란 사실을 아마도 이 영화의 감독은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디지털 세대에게 유튜브로 다가가는 코믹한 기독교영화 <콜링>.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나가는 모습은 분명 미래 기독교영화의 전망을 밝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Y**

*유튜브에서 '크리스천 영화 콜링'을 검색창에 치면 이 영화를 볼 수 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혜림 집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미국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목회하던 프레데릭 레만(Frederick Martin Lehman) 목사님이 작시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레만 목사님이 목회하던 1917년경 그 당시, 어머니들과 아내들은 좋은 시를 발견하거나 감동적인 문구를 읽으면 이것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레만 목사님의 부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좋은 시를 발견하면 남편에게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레만 목사님이 시무하던 시골교회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례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목사님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치즈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공장에 출근한 목사님은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 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 아내가 넣어준 아름다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할 수 없으리니’ 이 글은 유대 시의 한 구절로,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찬양대 지휘자, 마이르 벤 이삭크 느호라이(Meir Ben Isaac Nehorai)가 1050년에 쓴 유대교 찬양시「하다무트(서곡)」Haddamut(Prelude)’입니다.「하다무트」는 히브리 명절 칠칠절(샤부오트, Shavuot) 첫날, 십계명을 읽기 직전에 부르는 찬송으로 십계명의 서곡에 해당되는데, 이 찬송의 주제는 창조주의 능력과

기다리는 새 세계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 계명의 찬란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가를 완성시킨 레만 목사님은 1948년 그가 쓴 저서 “『하나님의 사랑』 뒷이야기” ‘History of the Song, The Love of God’에 이 찬송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917년 어느 날, 나는 아내가 짜준 도시락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종이를 펼쳐 들었다. 거기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히브리어 시가 실려 있었고 나는 빈 레몬 상자 위에 걸터앉아 몽당연필로 첫째 연과 둘째 연, 그리고 후렴을 먼저 작시한 후 셋째 연은 기존 히브리어 시의 운에 맞춰 고쳤는데 그것이『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난해한 아랍문학으로 씌어있어 그 함축된 뜻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웠던 이 시는 현재 18개 국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에게 애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 **Y**



*김혜림 집사님은 토요일 5시에 방송되는 극동방송 라디오의 찬송교실을 진행하면서 소망교회 성가대, 수원 청소년 합창단,

CTS 콘서트 콰이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평 복
(2남 안암5)



김 현 식
(6남 다락방7)



나 홍 자
(마리아 강서)



박 병 국
(6남 다락방9)



이 주 훈
(6남 다락방3)



전 성 하
(4남 보문5)



최 경 원
(베드로 옥수)



최 인 건
(6여 보문3)



황 예 경
(7여 다락방3)

신년 · 성찬식 1월6일(주) 1~4부 예배시

원로장로추대, 향촌직은퇴 예식 및 신입제직 임명 1월6일(주) 찬양예배

교역자 부임 표경림 준전임전도사(유치부), 이은서 준전임전도사(유아부, 아기학교)

제직수련회 1월13일(주) 찬양예배 강신원목사(노랑진교회 원로)

영암학당

- 겨울특강: "요한복음" 이완희전도사
- 봄 학기: "출애굽기" 서우진목사

교육부 및 청년공동체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 유치부: 12월8일(금)~9일(토) 에버랜드
- 초등1부: 2월9일(토)~10일(주) 교회
- 초등2부: 2월16일(토)~17일(주) 교회
- 중등부: 1월25일(금)~27일(주) 교회
- 고등부: 2월15일(금)~17일(주) 대부도 블루스카이펜션
- 청년공동체: 1월18일(금)~20일(주) 일산 증가수양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봉사활동

2월16일(토) 노원구 중계로 일대

2018 대림절 밀알헌금 결과 집계

- 밀알1: 사랑의 연탄 8,500장(6,745,000원)
- 밀알2: 자립화대상교회 쌀보내기, 42교회 20kg 77포(5,428,000원)
- 밀알3: 안암동, 보문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독거어르신 지원(80가정, 6,000,000원)

우신장학생장학금 전달식

2월17일 3부 예배시

- 고등학생: 박미선 박지연 송대범 유민아 이강진 정다희 최정우 한국 일(대광고) 표성민(용문고)
- 대학생: 강성빈 김별 박성빈 박은서 박인도 유소영 정문규 최성호 이기혁(연세대)

카페로템 개점

2월24일(주)

소석장학금 전달식 2월27일(수) 수요기도회 김상천전도사(장로회신학대학교)

사순절 행사

(3월6일~4월20일)

- 북한아동 돕기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 운동
- 미디어 금식

- 신약성경 통독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 3월7일(목) 이상만목사(백석대)

불학기 개강

- 전도학교 3월5일(화)
- 구역지도자모임 3월13일(수)
- 제 17기 아기학교 개강 3월14일(목)
- 늘푸른 대학 3월21일(목)

늘푸른 대학

3/21	희망과 함께 하는 행복시작	김정환 강사(시니어해피라이프 연구소)
3/28	백세시대의 건강과 영양관리	홍주영 소장(BH영양 연구소,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객원교수)
4/11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간증과 노래)	이인숙 선생(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
4/25	소 품	
5/2	실버체조 건강댄스	권희자 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5/9	건강 십계명	이갑숙 교수(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5/16	우리가족 교회사 이야기	서우진 목사(영암교회 부목사)

구역지도자수련회 4월4일(목)~5일(금) 부산진교회, 고신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가정사역 세미나 4월7일(주) 찬양예배 이윤남권사(서울명신초등학교장)

성찬식 4월14일(주) 1~4부 예배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15일(월)~20일(토) "선한 목자"(요10:11)

성금요일 예배

4월19일(금)

모노드라마 '녹슨 세 개의 못' 김석환목사(극단 모난돌)
강원지역 산불 피해주민 돕기 특별헌금

부활주일 새벽예배

4월21일(주)

성북교회연합회 부활절연합찬양제

(할렐루야찬양대 참가) 맑은샘광천교회

전교인이 함께하는 성북천 걷기대회 4월28일(주)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